

임부의 지각된 지지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

김 정 애* · 이 미 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은 임부에게 신체적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역할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정신, 정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므로 각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 기간중에 특별한 합병증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생활 사건이 없어도 임부는 자신의 외모 변화로 인하여 성적 매력과 성적 기능을 잃지 않으나 염려하게 되고, 임신중 경증 불편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분만시 겪게 될 동통이나 입원, 수술, 마취 등과 같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 및 기형아 분만이나 자연유산, 조산, 사산, 저능아의 분만 가능성을 두려워 할 수 있다고 한다.

임부의 불안은 임부 및 태아의 건강에 직결된다고 하는데, 임부가 임신 동안 경험하는 불안, 긴장, 공포, 우울, 양가감정 등의 정서 변화는 분만 과정과 출산시 합병증에 영향을 미쳐 지연분만이나 난산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신생아 Apgar 점수도 7점 이하로 되기 쉽고(Erikson, 1976), 분만 후에는 모아 상호 작용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다(Ottingel & Simmons, 1964; Rosengren, 1961). 또 이러한 임부의 불안이 제

속될 경우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임신과 무관한 사고에 의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Laukaran, 1980).

그러므로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부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학자들은 지지가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크다고 하며(안, 1984; Brown, 1984; Dimond & Jones, 1983; Thoits, 1982), 지지 제공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라고 한다(Caplan, 1974). 실제로 임부들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지보다도 가족의 지지,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배우자의 지지가 임부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임부는 배우자의 애정과 심리적 지지를 원하며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Cronenwett, 1981; Horsley, 1972; Mankanjuola, 1981; Vaughn & Leff, 1976).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배우자 지지는 임부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안, 1984), 산전 관리 이행 정도를 증진시키며(이, 1984), 산후 우울을 감소시키고(조, 1988), 태아 애착 행위와도 관계가 있다(고, 1988)는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배우자의 지지가 출산 과정에 걸쳐서 유익을 준다는 보고는 있어도, 어떤 경우에 임부

*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가 지지받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사실적인 규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하여 남편의 어떤 말과 행동이 임부들에게 지지받고 있거나,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게 만드는가를 규명하여, 지지 지각이 낮은 임부의 남편들에게 임부가 지지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임부를 돕는 방법 및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어, 앞으로 임신한 임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 주었을 때 임부가 지지받았다고 느꼈는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 2)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 주었을 때 임부가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꼈는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 3) 임부로 하여금 지지받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남편의 말과 행동의 사례를 임부의 남편들에게 제공하여 산전 교육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임부의 지각된 지지 : 만삭 분만한 임부들이 그들의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하여 남편,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았다고 느끼는 지지의 정도를 말한다.

II. 문헌고찰

1. 지지

인간은 주어진 사회적 환경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살아간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되어질 수 있는 사회적 요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인간은 지지받았다는 느낌을 갖는다. 지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내린 정의는 조금씩 다름을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Cobb(1976)은 지지를 사회적 지지, 도구적 지지, 능동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에는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해주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존경을 받고 가치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존

경지지, 대화할 수 있고 상호의무가 있는 망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 해 주는 정보인 망 지지를 포함시켰으며, Caplan(1974)은 지지 체계를 전문가와 공식적인 사회 시설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이고 비공식적인 사회단위, 가족, 개인 및 상부상조 기구의 총체라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지의 내용을 정서적 지지, 물리적 지지, 정보의 제공 및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House(1981)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 정보, 칭찬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포함된 대인관계적 거래로 정의하였고, Kahn과 Antonucci(1980)는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지지는 본질상 지지 체계내에서의 연결을 확인시키는 정신 사회적인 개념이지만, 지지의 제공은 물질, 언어, 정보 등을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서적 지지로 제한하여 정의될 수도 있고(LaRocco, House & French, 1980), 정보 제공, 물질적 도움 등을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하였다(Richter, 1984).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개인의 사회적 요구의 충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측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심리적 변수로 중요시 되고 있으며(Norbeck, 1981),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유해한 영향에 대해 방어적이고,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중재하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plan, 1974 ; Cassel, 1976 ; Dean & Lin, 1977).

따라서 지지가 결여되는 경우 그 결과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Henderson(1977)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었을 때 정신적 그리고 내과적 이환율이 증가된다고 하였으며, Berkman과 Syme(1979)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의 사망율은 사회적으로 접촉이 많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하며, 부적절한 지지가 질병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실제적, 생리적 변화의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지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받은 지지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느끼는가에 있다고 하며(Kiritz & Moos, 1974), 주어진 지지가 만족할 만한 것이었는지, 또는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가 개인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Poritt, 1979).

그 밖에도 지지는 간호 대상자들이 치료 지시에 잘 순응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하며(최, 1983), 만성 질환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에 의하면 노인 환자가 인지하는 가족 지

지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하였으며(김, 1990), 국군병원에 입원한 요통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지 간호를 실험군에게 제공한 경우 지지 간호의 제공이 요통 환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만족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으며(김, 1989), 연구군(임신초기·중기·말기)과 대조군(중기·말기)의 임부 각각 1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산전 간호 이행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진 건강 신념 변수와 산전 간호 이행 변수의 노정 분석을 한 결과 임신초기, 중기, 말기에서 모두 참고인의 지지와 유의성이 산전 간호 이행의 주요 설명 변수로 규명되었다는(이, 1984) 보고도 있었다.

2. 지지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 중재 변수로 작용하여 임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생활사건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불균형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임부는 임신과 신생아의 합병증이 높다고 하였으며, 낮은 스트레스와 낮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임부는 분만의 합병증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Norbeck & Tilden, 1983). Sharon 등(1989)은 사회적 지지가 사춘기 초산모들에게 신생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모성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므로써 모성 역할 적응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Cranley(1982)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존재는 임부와 태아와의 애착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Gordon(1959)도 임신시 임부에게 부적절하게 지지가 주어졌을 때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여 정신질환과 산후 정신증을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Morris, Udry와 Chase(1973)는 임신 기간 동안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임신을 원했던 산모의 저체중아 출산율이 2.4%였으나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산모의 저체중아 출산율은 11.8%로 나타났으며, 산모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가장 공통된 이유는 산모 자신이 부적절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ercer(1983)의 출산 인지에 대한 정신 사회적 및 산과적 변수와의 관계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다른 형태의 지지보다 더 긍정적인 출산 경험에 대한 인지를 예측해 준다고 하였으며, 배우자가 임신과 출

산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기와 부인에게 더욱 강한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며, 자아존중감은 물론 부인에 대한 존중감이 증진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강, 1985; Cronewett & NewMark, 1974). 또한 선진국의 경우 임신의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임신, 분만, 육아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분만후 산모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데(Trabert, 1981), Smith(1978) 등은 41쌍의 임부와 그 남편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에 9회, 산후 3개월내에 5회에 걸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임신, 분만, 육아중 불안을 덜고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부모로서의 능력과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임부와 관련된 지지에 대한 연구로는 제태 기간이 24주 이상된 임부 205명을 대상으로 한 고(1988)의 연구에서 임부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 행위와 태아 애착 행위와의 관계는 순상관 관계로써 배우자의 지지 행위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태아 애착 행위가 많다고 하였으며,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한 초임부 140명을 대상으로 한 안(1984)의 연구에 의하면 초임부 배우자 대상의 지지 강화 교육이 배우자의 초임부에 대한 지지 행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특히 첫 임신은 초임부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을 주게 되어 이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의 초임부에 대한 지지적 역할과 동조의식은 임부에게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하며(Anderson, 1974),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임부에게 주는 것은 배우자의 지지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배우자의 지지 행위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Horsley, 1972). 또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에 정서적 지지가 되어 그 지지의 결과로 예방적 효과, 치료적 효과, 완충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며(Burke & Weir, 1982), 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사회적 지지이고 효과적인 지지 자원은 어떤 근원보다도 가족, 특히 그 중에서도 배우자로부터 제공된 지지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Makanzuola, 1981; McDonald, 1970; Rackel, 1977), Clark(1975)는 간호사가 배우자로 하여금 임부를 잘 지지하도록 하면 임부의 스트레스는 감소되고 건강은 증진될 것이라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92년 7월부터 8월사이에 서울특별시내 일개 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여 질분만한 임부 19명과 제왕절개술을 받은 임부 11명을 대상으로 질분만 전·후나 제왕절개술 전·후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며, 질분만후 2~3일 경과했거나 제왕절개술 분만후 3~4일이 경과하여 신체적 피로감이 다소 회복되어 조기 이상이 가능한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이 22세부터 36세 사이로 평균연령이 28세이며, 초임부 21명 경산부 9명이며, 핵가족이 23명 대가족이 7명이며, 가정주부가 21명 직장에 다니는 임부가 9명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13명, 무교가 13명, 천주교, 불교가 각각 2명이었고, 학력은 대졸이 10명, 고졸이 20명이었다.

2. 자료수집

연구자가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직접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처음 예비 면담할 때에 임부가 입원한 병실에서 면담을 하였더니 주위가 산만하고 T.V나 방문객들의 소음으로 인하여 임부가 마음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며 녹음에도 잡음이 많이 들어가 연구 대상자들의 양해하에 산부인과병동 수간호사 방에서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면담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연구의 목적에 합당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면담 시간은 하루 중에서 식사시간, 치료시간, 보호자 방문시간 등을 제외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을 택하였고, 면담 시간은 임부마다 1회씩 약 25~30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임부들이 어떤 경우에 지지받았다고 느끼고, 어떤 경우에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꼈는가를 알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연구 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예비 면담한 결과 배우자라는 말 보다는 남편 이라는 말이, 지지받았는가 라는 말 보다는 좋았는가 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였고, 지지받지 못했다 라는 말 보다는 힘들었다 또는 슬펐다 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였으므로 질문 문구를 그와 같은 말로 수정, 보완한 다음에 1인의 간호학 전공 교수의 조언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질문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1) 임부의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하여 남편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주었을 때 가장 좋으셨나요?

- 2) 임부의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하여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주었을 때 가장 좋으셨나요?
- 3)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모를 때 도움을 청한 대상이 있었나요?
- 4) 누가 가장 잘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5) 남편이 어떻게 해주었을 때 가장 힘들었나요?(슬펐나요?)
- 6)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었을 때 가장 힘들었나요?(슬펐나요?)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Van Kaam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와의 면담을 녹음한 테이프를 반복해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대로 자료를 기술하였다.
- 2) 기술된 내용에서 지지와 관련된 의미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 3) 추출된 의미있는 진술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를 다시 공통되는 특성으로 묶어 범주화시키고 그 빈도를 확인하였다.
- 4) 범주화된 자료는 연구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해 명명되었다.
- 5) 분류된 범주화에 근거하여 임부들의 지지에 대한 지각 경험을 기술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간호학 전공 교수 1명과 분만경험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 간호사 4명과 분만경험이 없는 석사학위 소지 간호사 1명의 검증과 동의를 받았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질분만 전후나 제왕절개술 전후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임부에게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IV. 연구결과

1. 임부로 하여금 지지받았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

임부들은 남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일부를 담당하여 부담을 덜어주거나, 임부의 임신중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거나, 말로 격려해 줄 때 지지받고 있다고 느꼈다. <표 1>

각 범주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담을 덜어준다>는 범주는 『집안일을 덜어준다』 『큰애하고 놀아준다』 『딸이 좋다고 하다』 『참아준다』 『아들, 딸 구별말고 순산하라고 하다』의 5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집안일을 덜어준다』의 공통요소에는 ‘임신한 것을 알고서부터 남편이 다림질, 설겅이 다 해 주었어요’ ‘빨래, 청소 다 해 줬어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침 일찍 일어나 짜개해 놓았어요’라는 표현이, 『큰애하고 놀아준다』의 공통요소에는 ‘큰애 데리고 잘 놀아줄 때요’, ‘큰애를 전적으로 봐줬어요’라는 표현이, 『딸이 좋다고 하다』의 공통요소에는 ‘어른들이 아들을 원했지 남편은 딸을 더 원했거든요’, ‘딸 낳았는데 내색 안하고 딸도 좋다고 했을 때요’라는 표현이, 『참아준다』의 공통요소에는 ‘입덧이 너무 심해 두 달 동안 물만 먹어도 토했을 때 남편이 아침엔 우유만 마시고 출근했는데 아무소리 안했을 때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아들, 딸 구별말고 순산하라고 하다』의 공통요소에는 ‘아들, 딸 상관하지 말고 순산만 잘 하라고 했을 때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관심을 보여준다>는 범주는 『먹을 것 사 준다』 『예비 아버지 역할을 하다』 『먹으라고 하다』 『배부른 임부를 예쁘다고 하다』 『배 만져준다』 『태어날 아기 위해 기도 하다』 『세심한 관심 가져준다』 『함께 있어준다』 『좋은 것만 취하게 하다』의 9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먹을 것 사 준다』의 공통요소에는 ‘늦은 밤에 통닭 사 주었을 때요’ ‘임신 초기에 퇴근하면서 회를 사다 주었을 때요’라는 표현이, 『예비 아버지 역할을 하다』의 공통요소에는 ‘육아책 사오고 테이프 사왔을 때요’ ‘신문에 기재된 육아수첩 오려 줄 때요’라는 표현이, 『먹으라고 하

다』의 공통요소에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볼 때 좋았어요’ ‘먹고 싶은 것 다 사 먹어라 하고 말해 주었을 때요’라는 표현이, 『배부른 임부를 예쁘다고 하다』의 공통요소에는 ‘불러진 배를 보며 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을 때 좋았어요’ ‘만삭시 배가 이쁘다고 만져주고 귀엽다고 했을 때 좋았어요’라는 표현이, 『배 만져준다』의 공통요소에는 ‘배가 점점 불러올 때 힘들겠다고 배 만져주던 일이 좋았어요’ ‘배 만져줄 때요’라는 표현이, 『태어날 아기 위해 기도하다』의 공통요소에는 ‘태동이 있고서부터 배에다 손을 얹고 아가가 이 다음에 커서 남 앞에 내어 놔도 예의 바르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고 바람을 이야기 했을 때 좋았지요’ ‘주무시기 전 배에다 손 얹어놓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요’라는 표현이, 『세심한 관심 가져준다』의 공통요소에는 ‘침대 안쪽에서 항상 자는데 화장실 갔다와서 바깥쪽에 누우면 금세 알고 자리 바꿔 줄 때요’ ‘잠잘 때 부스럭 소리나도 물어보고 관심가질 때 좋더라구요’라는 표현이, 『함께 있어준다』의 공통요소에는 ‘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부부동반에 빠지지 않고 데려다줄 때 좋았어요’라는 표현이, 『좋은 것만 취하게 하다』의 공통요소에는 ‘비디오 볼 때도 칼싸움 등 무서운 것 피하고 재미있고 웃기는 것 빌려다가 같이 볼 때 좋았어요’ ‘T·V 볼 때 이상한 장면 나오면 채널 바꾸었어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편안하게 해 준다>는 범주는 『부축해 준다』 『시원하게 해 준다』의 2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부축해 준다』의 공통요소에는 ‘다닐 때 부축해 주었을 때요’라는 표현이, 『시원하게 해 준다』의 2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부축해 준다』의 공통요소에는 ‘다닐 때 부축해 주었을 때요’라는 표현이, 『시원하게 해 준다』의 공통요소에는 ‘만삭 때 저녁 때 되면 발바닥이 아팠는데 마사지해 주었을 때 좋았어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격려의 말을 해 준다>는 범주는 『격려의 말을 해 준다』의 공통요소로 ‘힘들지 라는 말 한 마디요’ ‘좀 더 자라고 한 마디 했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구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표 1〉 배우자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

범 주	공 통 요 소	빈 도	근 거 자 료
부담을 덜어준다	집안일을 덜어준다	26	임신전에는 안했던 설거지, 빨래 등 굵은 일 많이 해주었을 때요. 평소에는 꼼짝도 안하는 사람이 방 청소, 설거지 다 해주었어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해 놓고 있었을 때요. 설거지, 청소 다 해주었을 때요. 힘들다고 빨래, 청소 다 해주었어요. 임신한 것을 알고서 부터는 남편이 다림질, 설거지 다 해주었어요. 상도 들어다주방에 갖다 주고 방청소해주었을 때요. 집안일 도와줄 때 좋았어요. 설거지, 빨래 해주었을 때요. 입덧 심했을 때 빨래, 설거지 해주었어요. 빨래, 청소 다 해줬어요. 정말 행복 했어요! 내가 배를 구부리기 어려우니까 청소 심지어 걸레질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절대 안하는 청소, 설거지 해주었을 때요. 속옷도 빨아줄 때 좋았어요. 결혼전부터 내가 허리 아픈적이 있었는데 임신해서는 청소 다 해 주시고 좋았어요. 퇴근후 직접 요리도 해주어서 좋았어요. 일요일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서 직접 음식 만들어 주었을 때요. 음식도 직접 만들어 주었어요. 혼자서 밥 차려 먹을 때 좋았어요. 입덧 심했을 때 밥해 주었어요. 직접 요리도 했어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침 일찍 일어나 찌개해 놓았어요. 무거운 것 못들게 했어요. 임신하면 꼭 시장에 같이 다녀요. 무거운 것 들지 않게 해줄 때요. 내가 힘들까봐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큰애하고 놀아준다	5	휴일날 힘이 든다고 하면서도 큰애 데리고 산에도 가고 목욕탕에도 데리고 가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남편이 휴가반아 큰아이 보고 있었어요. 큰애 데리고 잘 놀아줄 때요. 큰애를 전적으로 봐줬어요. 큰애하고 책도 같이 보면서 잘 놀아줄 때 좋았어요.
	딸이 좋다고 하다	4	어른들이 아들을 원했지 남편은 딸을 더 원했거든요. 태아가 움직일 때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 다음에 딸하고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요. 여자 의사가 보기 좋아 의대 보내줬대요. 이번에도 수술해서 또 딸을 낳았는데도 아들에 구애됨이 없이 어떡냐고 괜찮다고 했을 때요. 딸 낳았는데 내색 안하고 딸도 좋다고 했을 때요.
	참아준다	3	입덧이 너무 심해 두 달 동안 물만 먹어도 토했을 때 남편이 아침엔 우유만 마시고 출근했는데 아무소리 안했을 때요. 입덧 심해 음식 못 만들 때 나중에 나가서 사 먹자고 하면서 참아 줄 때요. 아침에 10시까지 늦잠자면 아침을 손수 차려먹고 출근했을 때요.
	아들, 딸 구별말고 순산 하라고 하다	3	불러오는 배 보면서 아들, 딸 구별말고 자연분만하라고 했을 때요. 아들, 딸 상관하지 말고 순산만 잘 하라고 했을 때요. 입덧이 너무 심하니 하나만 낳고 그만 낳으라고 했을 때요.
관심을 보여준다.	먹을것 사준다	7	늦은 시간이라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려 통닭, 자두, 수박 사 왔을 때 좋았어요. 분만전 힘 내라고 고기 많이 사주었을 때요. 늦은 밤에 통닭 사 주었을 때요. 임신 초기에 남편이 퇴근하면서 회를 사다 주었을 때요. 입덧 심해서 음식 만들지 못했을 때 통조림 사다 주곤 했을 때 좋았어요. 입덧 심했을 때 과일 사다주고 외식시켜줄 때 좋았죠. 외식했을 때요.
	예비 아버지 역할을 하다	7	불러오는 배 만지면서 아기에게 좋으라고 숫자공부했을 때요. 내가 육아용품 사러 남대문 시장으로 간다고 하자 왕자 낳을건데 백화점에 가서 사라고 했을 때요. 육아책 사오고 테이프 사 왔을 때요. 신문에 기재된 육아수첩 오려 줄 때요. 내가 육아책 볼 때 꼭 옆에서 같이 보며 아기는 어떻게 키우나 하면서 관심을 가져줄 때 좋았어요. 아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상의해왔을 때 좋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놓은 배냇우물 보면서 아기의 태동에 대해 신기해 할 때요.

범 주	공 통 요 소	빈 도	근 거 자 료
관심을 보여준다.	먹으라고 한다	6	먹고 싶은것 먹어야 아가가 예쁘다고 하면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뭐 먹을 것 좀 사다 주세요요라고 했을 때 좋더라구요. 먹고 싶은것 원 없이 다 먹게 해주었어요. 먹고 싶은 것 다 사 먹어라하고 말해주었을 때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볼 때 좋았어요. 입덧해서 못 먹을 때 기도해 주어서 좋았어요. 우유가 몸에 좋은데 안 먹는다고 꾸짖을 때요.
	배부른 임부를 예쁘다고 한다	5	불러진 배를 보며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을 때 좋았어요. 배모양 보고 나는 흉하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름답다. 환상적이다라고 말했을 때요. 만삭시 배가 예쁘다고 만져주고 귀엽다고 했을 때 좋았어요. 만삭때 내 얼굴이 거칠어지고 몸이 부어 내 모습이 꼭 짐승같은데 남편은 예쁘다고 했을 때 좋았어요. 배모양 보면서 아들같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다, 환상적이다라고 했을 때요.
	배 만져주다	4	배가 점점 불러올 때 힘들겠다고 배 만져주던 일이 좋았어요. 만삭된 배 만져 주기도 하고 엄마 힘드니까 아가가 빨리 나오나라 했을 때 좋았어요. 배 만져 줄 때요. 배가 많이 불러오면서 배가 터졌을 때 연고 발라줄 때요.
	태어날 아기 위해 기도하다	3	태동이 있고서부터 배에다 손을 얹고 아가가 이 다음에 커서 남앞에 내어봐도 예의 바르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고 바람을 이야기했을 때 좋았어요. 주무시기전 배에다 손 얹어 놓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세요요라고 기도했을 때요. 아가를 위해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해 줄 때 좋았어요.
	세심한 관심이겨주다	2	내가 침대 안쪽에서 항상 자는데 화장실 갔다와서 바깥쪽에 누우면 금세 알고 자리 바꿔줄 때요. 잠잘 때 부스럭 소리나도 물어보고 관심가질 때 좋더라구요.
	함께 있어 주다	2	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부부동반에 빠지지 않고 데려갈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매일 회사에서 집으로 한 두번씩 전화해 줄 때 좋았어요.
	좋은것만 취하게 하다	2	비디오 볼 때도 칼싸움등 무서운 것 피하고 재미있고 웃기는 것 빌려다가 같이 볼 때 좋았어요. T.V 볼 때 이상한 장면 나오면 채널 바꾸었죠.
편안하게 해주다	부축해 주다	3	다닐 때 부축해 주었을 때요. 다닐 때 부축해 주고 그랬어요. 입덧이 심했을 때 병원까지 업고 다니고 그랬어요.
	시원하게 해주다	2	만삭 때 저녁 때 되면 발바닥이 아팠는데 마사지해 주었을 때 좋았어요. 허리 두드려 줄 때 좋았어요.
격려의 말을 해 주다	격려의 말을 해 주다	9	힘들지라는 말 한 마디요. 친정갔다오라고 했을 때 좋더라구요. 좀더 자르고 한 마디 했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구요. 잠언의 지혜로운 말 읽어줬을 때요. 배가 부르고 피곤한데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나가는 것 보니 대단하다는 남편의 말이 큰 힘이 되더라구요. 너와 내가 엄마, 아빠 된다고 말했을 때요. 건강만하고 아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요. 입덧이 너무 심하니 하나만 낳고 그만 낳으라고 했을 때요. 아가눈이 엄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좋았어요.

2)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

임부들은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임부를 위해 격려의 말을 해주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나 말을 해주거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줄 때 지지받고 있다고 느낀

다.<표 2>

각 범주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격려해 주다>는 범주는 『격려의 말을 해 주다』 『순산 하라고 말씀해 주다』 『임부를 위해 주다』 『함께 있어 주다』의 4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격려의 말을 해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직장 상사가 분만후 직장 다니라고 했을 때 좋았어요’ ‘학교 후배가 힘들겠어요 라는 한마디의 말이 힘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몸조심 잘 하라고 하셨을 때요’라는 표현이, 『순산하라고 말씀해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외국에 계신 시부모님이 전화로 순산하라고 하셨을 때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순산만 하라고 했을 때 좋았어요’라는 표현이, 『임부를 위해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시부모님이 남편보다 내 말을 들어줄 때 좋았어요’ ‘시아버님이 저에게 임신복 사 주려고 시장 옷 가게를 다 돌아 다녔지만 마땅한 옷이 없어 그냥 오셨다면서 산모에게 좋다는 화장품 제일 좋은 것으로 1set 사다 주셨을 때요’라는 표현이, 『함께 있어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결혼 안한 언니가 자주 집에 온 것이 좋더라구요’ ‘친정어머니는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되었어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부담을 덜어주다〉는 범주는 『집안일을 덜어주다』 『아들, 딸 구별 말라고 말씀해 주다』 『딸이 좋다고 말씀해 주다』 『무거운 것 못들게 하다』 『무거운 것 들어주다』 『자도록 하다』의 6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집안일을 덜어주다』의 공통요소에는 ‘내가 설거지 하기 전 시어머니가 먼저 설거지해 주었을 때요’ ‘시어머니가 가끔 오셔서 이불빨래해 주셨을 때 좋더라구요’ ‘시어머니가 입에 맞게 음식 준비해 주었을 때 좋았어요’라는 표현이, 『아들, 딸 구별말라고 말씀해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시부모님이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더 낳아라고 하셨을 때요’ ‘시부모님이 아들, 딸 구별말라고 하셨을 때요’라는 표현이, 『딸이 좋다고 말씀해 주다』의 공

통요소에는 ‘시아버님이 딸 낳아도 좋다고 하시면서 심적으로 편하게 해 주셨어요’ ‘친구가 예쁜 딸 낳아 공유 같이 키워라하고 말했을 때요’라는 표현이, 『무거운 것 못들게 하다』의 공통요소에는 ‘시댁 부모님이 무거운 것은 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태반이 밀으로 내려 앉았다는 말을 듣고 유산될까봐 걱정하시면서 무거운 것 들 때 도와 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라는 표현이, 『무거운 것 들어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옆주위 가게에서 무거운 것 들 때 도와 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라는 표현이, 『자도록 하다』의 공통요소에는 ‘시어머니가 늦잠자기 봐 두었을 때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관심을 보여주다〉는 범주는 『먹을 것 사 주다』 『먹고 싶은 것 물어보다』 『좋은 것만 취하라고 말씀해 주다』 『아기 선물 미리 사 주다』의 4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먹을 것 사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시부모님이 거울에 사기 어려운 참외 사 주셨을 때요’ ‘큰 시누이가 퇴근 길에 통닭 사 갖고 왔을 때요’라는 표현이, 『먹고 싶은 것 물어보다』의 공통요소에는 ‘친정어머니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 볼때요’ ‘큰시누이가 새언니 힘들죠, 무엇이 제일 먹고 싶어요라고 물어 보았을 때요’라는 표현이, 『좋은 것만 취하라고 말씀해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시부모님이 음악 좋은 것 들어라 하고 말해 주었을 때 좋았어요’ ‘친정부모님이 나쁜 것 보지 말라고 하셨을 때요’라는 표현이, 『아기 선물 미리 사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직장에서 선배들이 아기 선물 미리 사 주고 그랬을 때 좋았어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표 2〉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지지받았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

범 주	공 통 요 소	빈 도	근 거 자 료
격려해 주다	격려의 말을 해 주다	16	직장 상사가 분만후 직장 다니라고 했을 때 좋았어요. 직장 상사가 분만 휴가 중인 나에게 편하게 잘 있으라고 말 한마디 해주었을 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배 불러서 직장다니니 힘들어서 어떡하니 내가 대신 해 줄수도 없고 하셨을 때요. 시어머니가 배 만져 주면서 고생했다고 했을 때요. 친정어머니가 우리딸 힘든데 직장다니느라 고생한다며 등두드려 주었을 때요. 학교 후배가 힘들겠어요라는 한마디의 말이 힘이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믿는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라,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말을 해주었을 때 좋더라구요. 동생들이 조카 태어나면 잘 해 줄게 라는 말이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데 전화해서 몸이 괜찮으냐고 물어 보셨을 때요. 시부모님이 몸조심 잘 하라고 했을 때요. 시어머니가 몸조심하라고 하셨을 때요. 지방에 계신 친정부모님이 전화해서 몸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을 때요. 시아버님이 수술해서 힘든데 아주 불임수술까지 하지 그랬냐고 하셨을 때요. 시부모님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애 낳을 때 힘들니 적당하게 섭취하라고 하셨을 때요. 선배 언니가 출산후 몸조리할 때 선풍기 바람 쏘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요. 시부모님이 안정하라고 말해 줄 때 좋더라구요.

〈표 3〉 배우자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

범 주	공 통 요 소	빈 도	근 거 자 료
부담을 주다	가외(加外)일을 시키다	4	신문, 담배 등 갖다 달라고 잔심부름 시킬 때요. 늦게 들어와서 밥차려 오라고 했을 때요. 저녁 늦게 식사차려 달라고 했을 때요. 휴일날 나는 배가 불러 힘이 드는데 먹을 것, 특히 부침종류해 달라고 했을 때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다	3	내가 몸이 무거워 이불 깔아 달라거나 뒷좀 갖다 달라고 하면 몰라라 하고 돌아 누울 때 속상했어요. 큰애가 물어도 봐 주지 않고 T.V만 볼 때 야속했어요. 회사에서 퇴근후 힘들다고 혼자 혼자 놀라당 누워갈 때 속상했어요.
	성관계 원하다	3	몸이 무거워 힘이 드는데 성관계 요구했을 때 힘들었지만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지요. 배부름때 성관계에 신경이 쓰였어요. 성생활 원할때 힘들었어요.
	마음의 부담을 주다	3	임신 6~7개월 났을 때 내가 음식 잘 만들지 못하니까 친정가서 배워오라고 했을 때요. 옛날 여자들은 밭에서 일하다 아기를 낳았으며 분만후에도 얼마 안 있어 다시 나가서 일했다고 말했을 때 서운했지요. 아들 안 낳으면 안돼, 못 낳으면 계속 낳아야 해 라고 했을 때 속상했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무관심하다	임부의 괴로움을 몰라 주다	6	밤중에 내가 화장실 자주 다니니 그때마다 깨곤 했는데 짜증을 내어 슬프고 섭섭했어요. 밤 소변 자주 있어 화장실 가곤 했는데 남편이 나도 잠이 자주 깬다고 했을 때요. 잠잘 때 힘들어서 뒤척일 때 화를 내곤 했어요. 아침에 더 자고 싶거나 못 일어날 때 있었는데 더 자라고 하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입덧 심해서 화장실가서 소리내며 토하는데 화장실 들어와서 등 두드려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제왕절개술 분만후 환기가 있고 힘이 드는데 옆에서 자고 있을 때요.
	임부의 요구를 모르는 체하다	2	새벽 2시경 물이 먹고 싶어 좀 갖다 달라고 하자 네가 떠다 먹으면 안되니라고 했을 때 서글퍼지더라구요. 입덧 심할 때 오후 11시경 쯤 빵 먹고 싶었는데 사다주지 않아 서운했어요.
	질문에 답이 없다	1	배가 뭉칠 때 나도 궁금해 하면서 불안해서 병원에 가야 되나 하고 물어보면 대답없이 그냥 듣고만 말아요.
남편이 곁에 없다	집에 늦게 들어오다	5	늦게 들어오면 이유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친구분하고 술마시고 늦게 들어왔을 때 속상했고 잠이 안 왔어요. 임신중 꾸준히 받고만 싶은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술마시고 들어올 때 서글펐어요. 회사에서 체육대회 끝난후 회식갔다가 친구집에 들러서 늦게 들어왔을 때 속상했어요. 만삭이 되어 언제 분만할 지 모르는데 오후 11시경 남편이 친구에게 전화하더니 나가서 술마시고 새벽에 들어 왔을 때요.
	해외에 출장가다	1	해외 출장 갖다 같이 있지 못해 슬펐어요.
배려해 주지 않다	배려해 주지 않다	3	신랑이 늦잠자서 내가 깨우면 짜증낼 때요. 나와 아무 의논없이 걱정 그만두고 두 달 동안 놀 때 힘이 들었어요. 회사일을 중시하는 분이긴 하지만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을 때요.
임부를 꺾어 내리다	임부를 꺾어 내리다	2	신랑이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임신했다고 잘 해 주니까 기어오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술먹은 상태로 귀가해서 돼지 배처럼 부르니 보기 흉하다고 했을 때요.

2)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
 임부들은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줄 때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고 느낀다.〈표 4〉
 각 범주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관심하다〉는 범주는 『어려움을 모르는 체하다』 『다른 사람만을 위해 주다』의 2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

었는데 『어려움을 모르는 체하다』의 공통요소에는 ‘시어머님이 나에게 몸이 어떠냐는 말 한 마디 없고 내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니 아기가 먹어서 그렇다고 했을 때요’ ‘시댁에 갔을 때 음식 냄새 맡기 어려웠거든요, 그때마다 유난스럽다는 말에 속상했어요, 나는 시어머님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했는데...’ 라는 표현이, 『다른 사람만을 위해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시어머님이 전화하셔서 힘드냐, 뭐 먹고 싶은 것 없냐고 나에게 묻지는 않고 남편 잘 챙기느냐, 식사는 제때 해주느냐고 했을 때 힘들었어요, 남편 밖에 몰라요’ ‘시어머니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시누이만을 챙겨줄 때 슬펐어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부담을 주다〉는 범주는 『의무를 강요하다』 『분만에 대한 부담을 주다』의 2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의무를 강요하다』의 공통요소에는 ‘내가 가끔씩 아프

고 불편하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잘 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식사 준비 해야하고 역시 시부모님이라...’ ‘내가 하혈이 조금있어 가게 문을 2일간 일찍 닫았더니 시어머님이 게으름 피운다고 하실 때요’라는 표현이, 『분만에 대한 부담을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아들난 친구들이 배 보면서 딸 같다고 했을 때요’ ‘분만 예정일 지나도 진통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배 안 아프냐고 물어보거나 주위에서 아직 출산 안 했느냐고 전화했을 때 내가 꼭 죄 지은것 같고 부담스러웠어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임신을 기뻐해 주지 않다〉는 범주는 『임신을 기뻐해 주지 않다』의 공통요소로 ‘저는 신혼초에 아이를 가졌는데 먼저 결혼한 남편의 친구 내외가 신혼생활을 즐기다 아이 갖지 왜 아이 일찍 임신했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슬펐어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표 4〉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

범 주	공 통 요 소	빈 도	근 거 자 료
무관심하다	임부의 어려움을 모르는 체하다	4	시어머님이 나에게 몸이 어떠냐는 말 한 마디 없고 내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니 아기가 먹어서 그렇다고 했을 때요. 시댁에 갔을 때 음식 냄새 맡기 어려웠거든요. 그때마다 유난스럽다는 말에 속상했어요. 나는 시어머님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했는데... 친정올케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좀 해다 주면 좋겠는데 미리 말 한 마디 없는 것이 섭섭하고 속상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 지지리도 못 만났다 라고 하시고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에게 사다 달래라 하실 때 농담이지만 슬펐어요.
	임부 아닌 다른 사람만을 위해 주다	4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시어머님이 고기 많이 먹으면 아기 피부가 검어진다 고 하시면서 남편에게만 이것저것 먹이라 하고 며느리인 나에게 아무말 안 하실 때 섭섭했어요. 시어머님이 전화하셔서 힘드냐, 뭐 먹고 싶은 것 없냐고 나에게 묻지는 않고 남편 잘 챙기느냐, 식사는 제때 해주느냐고 했을 때 힘들었어요. 남편 밖에 몰라요. 시어머님이 지방에 계셔서 집에 전화할 때 나에게 전화 주시지 않고 남편하고만 전화로 말이 오고 갈 때요. 시어머니가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시누이만을 챙겨줄 때 슬펐어요.
부담을 주다	임부의 의무를 강요하다	4	내가 가끔씩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잘 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식사 준비 다 해야하고 역시 시부모님이라... 시누이가 만삭때까지 시부모 봉양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나와 비교했을 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하혈이 조금 있어 가게 문을 2일간 일찍 닫았더니 시어머님이 저에게 게으름 피운다고 하실 때요. 시집간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올케 많이 먹이지만 말고 운동시키라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요.
	분만에 대한 부담을 주다	3	아들난 친구들이 배 보면서 딸 같다고 했을 때요. 분만 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배 안 아프냐고 물어보거나 주위에서도 아직 출산 안 했느냐고 전화했을 때 내가 꼭 죄 지은것 같고 부담스러웠어요. 개인의원에 산전 진찰 받으러 갈 때마다 아기가 크니까 다른 병원에 가 보라고 할 때 섭섭했어요.
임신을 기뻐해 주지 않다	임신을 기뻐해 주지 않다	1	저는 신혼 초 아이를 가졌는데 먼저 결혼한 남편의 친구내외가 신혼생활을 즐기다 아이 갖지 왜 그리 일찍 임신했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슬펐어요.

범 주	공 통 요 소	빈 도	근 거 자 료
격려해 주다	순산하라고 말씀해 주다	3	외국에 계신 시부모님이 전화로 순산하라고 하셨을 때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순산만 하라는 한마디요.
	임부를 위해 주다	3	시부모님이 남편보다 내 말을 들어줄 때 좋았어요. 시아버님께 용돈드리니까 안 받으시고 아기 키울 때 보태라고 돈을 다시 주셨을 때요. 시아버님이 저에게 임신복 사주려고 시장 옷 가게를 다 돌아다녔지만 마땅한 옷이 없어 그냥 오셨다면서 산모에게 좋다는 화장품 제일 좋은 것으로 1set 사다 주셨을 때요.
	함께 있어주다	2	결혼 안한 언니가 자주 집에 온 것이 좋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되었어요.
부담을 덜어주다	집안일을 덜어주다	9	내가 설거지 하기전 시어머님이 먼저 설거지해 주었을 때요. 시어머님이 가끔 오셔서 이불빨래해 주셨을 때 좋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친딸처럼 가사 돌봐 줄 때요. 입덧 심하여 우거지국 먹고 싶었을 때 친정어머니가 직접해 주실 때 좋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음식장만해 주셨을 때요. 입덧시 냄새 맡기 어려울 때 시어머니가 직접와서 해 주셨을 때요. 시어머니가 입에 맞게 음식준비해 주셨을 때 좋았어요. 친정어머니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 주셨을 때요. 친정어머님이 만삭시 큰애 봐 주셨을 때요.
	아들, 딸 구별말라고 말씀해 주다	5	시어머님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만 낳아라고 하실 때요. 시부모님이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더 낳아라고 하셨을 때요. 시댁이 지방인데 전화해서 딸이나 아들이든 구별말고 건강한 아이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을 때요. 시부모님이 아들이나 딸이나 아무나 낳아도 우리 손자니까 상관 안 한다고 하셨을 때요. 시부모님이 아들, 딸 구별말라고 하셨을 때요.
	딸이 좋다고 말씀해 주다	3	친구가 예쁜 딸 낳아 공주같이 키워라 하고 말했을 때요. 시아버님이 딸 낳아도 좋다고 하시면서 심적으로 편하게 해주셨어요. 시어머님이 딸이라도 건강하게 주셨으니 따지지 말라고 말해 주셨을 때요.
	무거운 것 못들게 하다	3	시댁 부모님이 무거운 것은 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태반이 밀로 내려 앉았다는 말을 듣고 유산될까봐 걱정하시면서 무거운 것 못들게 했어요. 친정부모님이 무거운 것 들지 말라고 말해 주셨어요.
	무거운 것 들어주다	1	옆 주위 가게에서 무거운 것 들 때 도와 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
	자도록 하다	1	시어머님이 내가 늦잠 자도록 봐 두셨을 때요.
	관심을 보여 주다	먹을 것 사주다	9
먹고 싶은 것 물어보다		6	시부모님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신랑에게 사다 달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요. 학교 후배들이 맛있는 것 사 줄테니 이야기 하세요 라고 했을 때요. 친정어머니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볼 때요. 큰 시누이가 새언니 힘들죠! 무엇이 제일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 보았을 때요. 시부모님이 무엇이든지 잘 먹느냐고 물어 보실 때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너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사라고 돈을 주셨을 때요.

범 주	공 통 요 소	빈 도	근 거 자 료
관심을 보여 주다	좋은 것만 취하라고 말씀해 주다.	6	시어머님이 저에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안정하고 좋은 생각만 하라는 말씀고마웠어요. 시부모님이 음악 좋은 것 들어라라고 말씀해주셨을 때요. 친정 부모님이 나쁜 것 보지 말라고 하셨을 때요. 친정 부모들이 좋고 바른 것만 생각하라고 하셨을 때요. 선배 언니가 모난 것 먹지 말고 예쁜것만 보라고 하셨을 때요. 직장에서 선배들이 임신 중에는 좋은 말만하고 아가하고 이야기 하라고 했을 때요.
	아기 선물 미리 사 주다	1	직장에서 선배들이 아기 선물 미리 사 줄 때 좋았어요.

2. 임부로 하여금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

1) 배우자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

임부들은 남편이 자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무관심하거나, 남편이 곁에 없을 때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표3>

각 범주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담을 주다>는 범주는 『가외일을 시키다』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다』 『성관계원하다』 『마음의 부담을 주다』의 4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가외일을 시키다』의 공통요소에는 ‘신문, 담배 갖다 달라고 잔 심부름 시킬 때요’ ‘늦게 들어와서 밤 차려오라고 했을 때요’라는 표현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다』의 공통요소에는 ‘큰애가 울어도 봐 주지 않고 T.V만 볼 때 야속했어요’ ‘회사에서 퇴근후 힘들다고 혼자 홀라당 누워 잘 때 속상했어요’라는 표현이, 『성관계 원하다』의 공통요소에는 ‘배부를 때 성관계에 신경이 쓰였어요’ ‘몸이 무거워 힘이 드는데 성관계 요구했을 때 힘들었지만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지요’라는 표현이, 『마음의 부담을 주다』의 공통요소에는 ‘임신 6~7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내가 음식 잘 만들지 못 하니까 친정가서 배워오라고 했을 때 슬펐어요’ ‘아들 안 낳으면 안돼, 못 낳으면 계속 낳아야 해 라고 했을 때 속상했어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무관심하다>는 범주는 『괴로움을 몰라주다』 『요구를 모르는 체하다』 『질문에 답이 없다』의 3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괴로움을 몰라주다』의 공통요소에는 ‘밤중에 내가 화장실 자주 다니니 그때마다 깨곤 했는

데 짜증을 내어 슬프고 섭섭했어요’ ‘잠잘 때 힘들어서 뒤척일 때 화를 내곤 했어요’ ‘입덧 심해서 화장실가서 소리내며 토하는데 화장실 들어와서 등 두드려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라는 표현이, 『요구를 모르는 체하다』의 공통요소에는 ‘새벽 2시경 물이 먹고 싶어 좀 갖다 달라고 하자 네가 떠다 먹으면 안되니 라고 했을 때 서글퍼지더라구요’ ‘입덧 심할 때 오후 11시경 전뺑 먹고 싶었는데 사다 주지 않아 서운했어요’라는 표현이, 『질문에 답이 없다』의 공통요소에는 ‘배가 몽칠 때 나도 궁금해 하면서 불안해서 병원에 가야 되나 하고 물어보면 대답없이 그냥 듣고만 말아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남편이 곁에 없다>는 범주는 『집에 늦게 들어오다』 『해외에 출장가다』의 2가지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는데 『집에 늦게 들어오다』의 공통요소에는 ‘늦게 들어오면 이유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친구분하고 술마시고 늦게 들어왔을 때 속상했고 잠이 안 왔어요’라는 표현이, 『해외에 출장가다』의 공통요소에는 ‘해외 출장이 잦아 같이 있지 못해 슬펐어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배려해 주지 않다>는 범주는 『배려해 주지 않다』의 공통요소로 ‘신랑이 늦잠자서 내가 깨우면 짜증낼 때요’ ‘회사 일을 중시하는 분이긴 하지만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을 때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깎아 내리다>는 범주는 『깎아 내리다』의 공통요소로 ‘신랑이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임신했다고 잘 해 주니까 기어 오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술 먹은 상태로 귀가해서 돼지 배처럼 부르니 보기 흉하다고 했을 때요’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V. 논 의

임부로 하여금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은 <부담을 덜어 주는 일>, <관심을 보여 주는 일>, <격려해 주는 일>, <편안하게 해 주는 일>의 4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의 특성을 보면 핵가족의 가족 형태가 많아서인지 부부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 집안 일을 직접 도와 주어 임부의 신체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부부간의 역할 구조는 권력 구조에 의한 전통적인 남편의 역할을 탈피한 평등주의적 상호 협동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Giele(1980)과 이(1985)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외모의 변화 특히 만삭된 배를 보면서 예쁘다고 말을 해주거나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어 지지 받았다고 느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편들이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면 부인과 함께 경험하기 원하며 부인의 변화된 외모나 태동을 즐기거나(Kitzinger, 1982), 부인과 아기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Klaus(1980)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 외에 임부가 임신으로 힘들어 할 때 남편이 사랑의 표시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거나, 먹을 것을 사 주거나, 격려의 말을 해 주므로써 지지받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은 <격려해 주는 일>, <부담을 덜어 주는 일>, <관심을 보여 주는 일>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배우자의 경우와 비슷한 범주를 보였으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지지에서는 대부분이 핵가족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지 못하므로 직접 집안일을 도와 주기 어려우니까 임부에게 말로써 격려해 준 내용이 많았는데 딸이 좋다. 아들 딸 구별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좋았다고 한 연구 결과는 임부들이 태어날 아기의 성별에 대해서 67%가 걱정하고 있으며, 84%가 남아를 원하고 있다고 한 강(1980)의 연구결과를 볼 때 임신시 성별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아직도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도 좋은 것만 취하라고 관심을 보여준 내용은 임부의 건강은 태아와의 관계 형성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예로부터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사료된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의미를 정서적 관심, 도움, 정보, 칭찬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관계적 거래라고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 임부 자신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거나 힘들어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부담을 덜게 되었고 먹을 것을 사 주는 등 대부분의 임부들이 태아보다는 임부 중심적인 내용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정보 제공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받았다고 하였지만 이것을 받은 것에 대해 지지받았다고 느끼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부가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은 <부담을 준다>, <무관심하다>, <남편이 곁에 없다>, <배려해 주지 않다>, <짜아 내리다>의 5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고,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은 <무관심하다>, <부담을 준다>, <임신을 기뻐해 주지 않다>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임부가 배우자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은 임신과 관련된 외모나 역할 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동시에 평상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 임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낀 '신랑이 늦잠자서 깨우면 짜증낼 때요',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 서운했어요', '임부와 아무 의논없이 직장을 그만두어 힘들었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임신중 임부의 정서 상태가 임신전과 달라 생활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밤 소변으로 인해 화장실 자주 다닐 때나 입덧이 심해서 토했을 때 도와주지 않아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낀 내용은 임부의 83.3%가 입덧이 있었고, 82.5%가 밤 소변으로 인한 불편감이 있었다는 이(199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원할 때 힘이 들었다라는 내용은 임신의 복부 돌출이 성생활의 체위에 불편을 주고 임부 자신의 체형이 변화됨으로써 기분이 저하되고 불쾌감을 느끼게 됨에 따라 성욕구가 감소하게 된다고 한 Wachstein(1979)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임부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든 내용들은 대부분 시댁에서 잘 해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임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나 남편만을 위해 주는 것이 임부에게는 어려웠던 내용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하여 누가 가장 잘 해주었나라는 질문에 남편, 친정부모, 시어머니, 친언니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지지중 배우

자의 지지가 임부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Cronenwett(1981)와 Rackel(1977)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임부에게는 지지의 근원으로 가족, 특히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성 건강 분야에 임하는 간호 교육자는 임부 뿐만 아니라 그 지지 체계인 배우자를 산전 교육에 참여하게 하여 임신, 분만중 배우자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산전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임부의 지지 지각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 자료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임부의 일을 덜어주세요**

- 이따금씩 설거지, 빨래, 방 청소 등으로 임부의 일을 조금 덜어 주십시오.
- 임부가 일할 때나 힘들어 할 때 큰애와 잠시 놀아 주십시오.
- 함께 다닐 때 임부를 살짝 부축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 집에 일찍 들어오기 어려울 때에는 부인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 임신 중이라도 함께 외출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 임부의 외모 변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나가 주십시오.

*** 임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세요**

- 이따금 출근시에 임부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십시오.
- 입덧이 심할 때에는 가끔 외식을 시켜 주십시오.
- 귀가시 임부가 먹고 싶다는 음식 사다 주십시오.
- 식사시 이것저것 많이 먹으라고 말해 주십시오.

*** 임부의 외모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배 모양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거나 예쁘다고 말을 하십시오.
- 배가 점점 불러지면 가끔 배 만져 주거나 허리나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십시오.

*** 임부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세요.**

- 아들, 딸 구별말고 순산만 하라고 격려하십시오.
- 몹시 고단해 할 때에는 아침에 “좀더 자”라고 말해 주십시오.
- 이따금 “힘들지”라고 말해 주십시오.
- 외모에 관한 불유쾌한 표현은 삼가하십시오.

*** 임부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 임신시에는 밤 소변이 있으므로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 임부와 함께 태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어 보십시오.
- T.V나 비디오 볼 때도 무서운 것 피하고 재미있는 장면을 함께 보십시오.
- 임부에게 임신복과 육아책이나 육아용품 등을 선물해 보십시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하여 남편의 어떤 말과 행동이 임부들로 하여금 지지받고 있거나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가를 규명하여 지지 지각이 낮은 남편들에게 임부가 지지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방법 및 남편의 역할을 알려주어 앞으로 임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특별시 내 일개 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여 질분만한 임부 19명과 제왕절개술을 받은 임부 11명으로 질분만 전·후나 제왕절개술 전·후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임부들로서 자료 수집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이었다. 연구 방법은 6개의 개방형 예비 질문을 사용한 면담이었으며 산모 1인당 1회, 약 25~30분에 걸쳐 그들의 지지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Van Kaam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의하여 근거자료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내용끼리 몇가지 공통요소로 분류한 다음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임부들은 남편과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집안 일을 도와주어 육체적인 부담을 덜게 되고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구별 말라고 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거나, 임신부의 요구를 고려하여 먹을 것 사주고 좋은 것만 취하도록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거나, 격려해 줄 때 지지받고 있다고 느꼈다.
- 2) 임부들은 남편과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임부의 어려운 사정을 몰라주고 임부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면서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대신 일을 더 맡겨서 육체적인 부담을 주고, 주부로서의 임부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줄 때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로 나온 교육안으로 교육받은 남편을 둔 실험군과 교육받지 않은 남편을 둔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구가 실시될 것을 요망한다.

참 고 문 헌

- 강남미(1985). 아버지의 산전 간호 참여도와 신생아에 대한 애착 행위 인식 정도와의 상관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강정희(1980). 임신부와 불안 공포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명숙(1988). 임부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 행위와 태아 애착 행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미숙(1990).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가 인지하는 가족의 지지 정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김정아(1989). 지지 간호가 군 요통 환자의 우울·기분·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안황란(1984). 초임부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지지 강화 교육의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동원(1985). 가족제도 :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 아산 사회복지 사업재단.
- 이미라(1984). 임부의 건강 신념과 산전 간호 이행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미라(1991). 조정호, 송미승, 김은경, 임신중 경증 불편감 호소율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창간호, 16~22.
- 조영숙(1988). 산모 지지를 위한 배우자 교육이 산후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영희(1983). 지지적 간호 중재가 가족 지지 행위와 환자 역할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Anderson, B.A., Camacho, M.H. and Jeanne, S. (1974) Pregnancy and Family Health,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 Berkman, L.F. and Syme. L.S.(1979). Social Networks, Host Resistance, and Mortality : A Nine-Year Follow-up Study of Alameda County Resid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9(2), 186~204.
- Brown M.A.(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Health, A Comparison of Expectant Mothers and Fathers, Nursing Research, 35(2), 49~54.
- Burke R.J., and Weir, T.(1982). Husband-Wife Helping Relationships as Moderators of Experienced Stress ; The Mental Hygiene Function in Marriage, Family Stress : Coping Social Support, C. Thomas Publisher.
- Caplan G. and Killilea, M.(1974). Support System and Mental Health, New York : Behavioral Publications.
- Cassel, J.(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4(2), 107~122.
- Clark, A.L.,(1975). Labor and Birth : Expectations and Outcomes, Nursing Forum, 14(4), 413~428.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ronenwett, L.R. and New Mark, L.L.(1974). Father's Responses to Childbirth, Nursing research, 23, 210~217.
- Cronenwett, L.R. and William K.W.(1981).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Fatherhood, Nursing Research, 30(4), 196~200.
- Cranley, M.S.(1982). Social Support as a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Parents' Attachment to their Unborn, Paper Presented at Nursing Round Table on Social Support and Families of Vulnerable Infants,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Dean, A. and Lin, Nan.(1977).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Journal of Nerves and Mental Disease, 165(6), 403~417.
- Dimond, M. and Susan L.J.(1983). Social Support :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Quoted in Peggy L. Chinn, ed., Advances in Nursing Theory Development, London : An Aspen Pub.

- Erikson, M.T.(1976).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Variables and Specific Complication of Pregnancy, Labor and Deliver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0(3), 207~210.
- Giele, J.Z.(1980). Changing Sex Role and Family Structure, Family in Transition, (ed.) Arlene Skolnick,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Gordon, R.E., and Gordon, K.K.(1959). Social Factors in the Prediction and Treatment of Emotional Disorders in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77, 1074~1083.
- Henderson, S.(1977). The Social Network, Support and Neuro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1, 185~191.
- Horsley, S.(1972). Psychological Management of the Pre-Natal Period, Modern Perspective in Psycho-Obstetrics, New York : Brunner Mazel Publishers.
- House, J.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California :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Kahn, R.L., and Antonucci, T.C.(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ed. P.B. Baltes et al.), New York : Academic Press.
- Kiritz, S. and Rudolf, H.M.(1974). Physiological Effects of Social Environment, Psychosomatic Medicine, 36(2), 94~114.
- Kitzinger, S.(1982). The Complete Book of Pregnancy & Childbirth, N.Y. : Knopf, Alfred.
- Klaus, M.H.(1980) Maternal-Infant bonding, St. Louis : C.V. Mosby.
- LaRocco, J.M., James S.H., and French, J.R.P. (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02~218.
- Laukaran, V.H.(1980).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Attitude to Pregnancy Outcomes and Obstetric Co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36, 374~379.
- Makanjuola, R.O.A.,(1981). Psychotic Disorders after Childbirth in Nigerian Women, Tropical and Geographical Medicine, 67~72.
- McDonald, A.P.,(1970).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the Practice Birth Control, Psychological Report, 27, 206.
- Mercer, R.T., Hacklay, K.C., and Bostrom, A.G. (1983).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and Perinatal Variables to Perception of Childbirth, Nursing Research, 32(4), 202~207.
- Morris, N.H., Udry, J.R. and Chase, C.L.(1973). Reduction of Low Birth Weight Rates by Prevention of Unwanted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3(111), 935~938.
- Norbeck, J.S. and Tilden, V.P.(1983).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Disequilibrium in Complications of Pregnancy : A Prospective, Multivariate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March), 30~46.
- Ottingel D.R. & Simmons J.E.(1964). Behavior of Human Neonates and Prenatal Maternal Anxiety, Psychological Report, 14, 391~394.
- Poritt, D.(1979). Social Support in Crisis : Quantity or Qual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3A, 715~721.
- Rackel, R.E.(1977). Principles of Family Medicine, Philadelphia : W.B. Saunders Co.
- Rosengren, W.R.(1961). Some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Delivery Room Difficulties, Journal of Nerves and Mental Disease, 132, 515~521.
- Richter, J.M.(1984). Crisis of Mate Loss in the Elderl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6(4), 45~54.
- Sharon, L.D.(1989). Social Support and Adaption to the Parent Role in first time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Gynecological Nursing, July / Aug., 327~337.
- Smith, D. and Smith, H.L.(1978). Towards Improvements in Parenting, Journal of Gynecological Nursing, 1978, 7(6), 22~27.
- Thoit, P.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2), 145~156.

- Trabert, C.(1981). Prenatal Tactile Intervention Can Be Encouraged,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6, 108~109.
- Vaughn, C.E. & Leff, J.P.(1976). The influence of Family and Social Factors on the course of Psychiatric Illness : A Comparison of schizophrenic and depressed neurotic 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9, 125~137.
- Wachstein, A.E.(1979). Pregnant Moments New York : Morgan and Morgan Inc.

- Abstract -

Factors Contributing to Perceived Support in Pregnant Women

Kim, Jung Ae · Lee, Mila***

Pregnant women need to be supported by their husbands and other family members.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perceived support in pregnant women. So this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the factors contributing to perceived support in pregnant wome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9 women who had had vaginal deliveries and 11 who had had cesarean sections in one hospital affiliated with a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during July and August 1992 through interview which lasted 20~30 minutes and used open

ended questions. Each woman was interviewed once about their pregnancy experie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Van Kaam'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similarity of content.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Mothers felt physically supported by having help with their activities from their husbands or other family members. Psychological stress was relieved by not having to worry about and/or giving a birth to a baby boy ; getting special attention ; and hearing encouraging words.
- 2) Mothers felt not supported when indifference was shown by her husband and/or relatives ; when forced to do an unusual household activities ; or on hearing words stressing her responsibilities.

Suggestion for further study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see if or not the contents of an educational program would increase the perceived support of pregnant women. This could be done by carrying out an experimental research project.

* Chung Ang University Yong San Hospital.

**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